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미테랑 국립도서관

2023년 4월 12일 ~ 7월 16일



플리니 세쿰디 나투랄리스 히스토리라이아 리브리(박물지) 37권
가이우스 플리니우스 세쿰두스 (23-79년)
1469년 판본
© 프랑스 국립도서관 희귀서적 서고 소장

15세기 중반 유럽 전역에서는 서적의 보급과 지식의 전파 방법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인쇄술의 발명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인쇄술의 발전 역사를 돌아보고 그 성공의 비결을 추적함으로써 인류의 가장 뛰어난 발명인 인쇄술을 조명한다. 특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 판목인 <프로타 판목(Bois de Protat)>(프랑스 또는 독일 남부, 1400년경), 금속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적인 <직지>(한국, 1377) 그리고 유럽 최초의 활판 인쇄물인 <구텐베르크 성경>(독일, 1455년경) 등 중요 소장 자료들을 최초로 동시 공개한다.

인쇄술의 발명은 역사의 근본적 변혁이며 현대화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쇄술의 시작이라 하면 흔히 독일 마인츠 출생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가 1455년경 발행한 '42행 성경'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번 전시는 구텐베르크 이전의 인쇄술을 명확히 밝혀내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시금 되돌아보고자 한다. 중국 또는 한국은 최소 8세기부터 목판인쇄술을 사용했다. 그리고 금속활자로 인쇄한 가장 오래된 서적인 <직지>는 고려 시대 때 만들어졌다. <직지>는 78년 뒤에 제작된 구텐베르크의 인쇄 방법과 유사하다. 구텐베르크는 <직지>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당시 유럽에 이미 존재하던 인쇄 기술과 관행을 따랐을 것이다. 유럽은 처음에는 나무로, 이후에는 구리로 만든 주형을 이용해 1400년경부터 그림의 인쇄와 복제가 가능해졌다. 대량 보급을 위한 인쇄가 필요했지만, 대량 인쇄는 슈트라스부르크 망명 시절 구텐베르크와 가까이 지내던 금속세공업자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였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금속 공예 및 시각 예술에서 이미 사용하던 조금 기법(금속을 두들겨서 문양이나 글씨를 새김), 주조 및 전사 프rinting 기법을 모두 통합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단 한도 출간되지 않은 방대한 양의 글씨로 된 서적에 이를 적용했다. 그 결과, 1300쪽에 달하는 성경을 즉시 여러 부 인쇄하여 시장에 보급할 수 있었고 당시 150부 이상의 성경을 인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구텐베르크의 뒤를 이어 인쇄업자, 인문학자, 예술가들은 수많은 시도 끝에 그의 인쇄술을 확산시켰고, 인쇄 방식의 고도화 덕분에 15세기 인쇄업자들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파우퍼를
알브레히트 피스터
1463년경 밤베르크
© 프랑스국립도서관 희귀서적 서고 소장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험의 증거물인 약 270점의 작품을 통해 인쇄소에서부터 서점의 진열대까지, 그리고 수공업자에서부터 독자에 이르기까지 도서 제작의 전반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인쇄술이 낳은 업적과 발전을 다루고자 한다. 15세기 인쇄소들은 사실상 실험 연구소로 기능하며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유럽 전역에 인쇄술을 보급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러한 기술은 당시 인쇄소를 재현한 공간에서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박물관 소장품인 당대의 특수 프레스기와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구텐베르크 성경>: 신화의 탄생

프랑스국립도서관은 <구텐베르크 성경> 2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한 점은 마인츠 지역에서 제작되었고 양피지에 인쇄한 것으로 화려한 장식이 특징이며 보존 상태 또한 뛰어나다. 다른 한 점은 종이에 인쇄한 것으로, 채색과 장식이 비교적 소박하다. 이 책에는 1456년본이라고 적힌 기록이 있어 실제 제작연도를 추측할 수 있는 희귀한 사료이다. 두 점 모두 서양 활판 인쇄의 시작을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은 로렌 지역의 베네딕트회 수도사였던 장-바티스트 모제라르(Jean-Baptiste Maugérard, 1735~1815)의 직접 중개로 1787년과 1792년에 각각 이 두 권을 모두 수집하게 되었다. 모제라르 수도사는 서적 거래를 하던 서지학자였는데, 이때는 수집가들의 서적 시장이 막 형성되고 있던 시기였다. 초기 인쇄본의 가치를 알아본 그는 희귀본들을 찾아 라인 지역의 수도원들을 방문했으며, 희귀본들을 찾아내면 이를 부유한 수집가들에게 선보였다. 모제라르 수도사가 1789년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최초로 « 구텐베르크 성경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책의 특성상 제작자가 알려지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렵고, 그렇게 ‘구텐베르크 신화’가 탄생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화로 인하여 구텐베르크 이후에 인쇄술의 발전과 근대 인쇄술에 크게 기여한 다른 이름들은 구텐베르크의 뒤에 가려져 있다.

신기술 연구소

인쇄업자들은 곧이어 프레스기와 활자의 개선, 페이지 레이아웃,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등 라틴어가 아닌 언어의 인쇄, 악보 인쇄, 삽화 삽입, 글과 이미지의 컬러 인쇄 등 여러 단계의 공정에서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다. 이 전시에서는 이러한 난관에 대한 당시의 해결책을 탐구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그 중 일부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계승될 것이다. 특히 삽화 인쇄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삽화는 책을 보다 매력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 무렵 수많은 향로가 빠르게 개척되었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스위스의 바젤 또는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같은 전문 인쇄소들이 생겨났다. 예술가들 역시 이 새로운 분야에서 자리를 차지했다.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는 15세기 후반 <요한계시록>을 출간하며 삽화 기술에 혁명을 일으켰다. 이 책은 삽화를 중심으로 하며 페이지의 앞면에는 삽화가 뒷면에는 글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인쇄물과 사회

초기 인쇄본들은 전통적인 필사본과 상당히 유사했지만 점차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 형식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매체로 인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제품이 탄생했다. 16세기 초에 책은 중세적 특징을 잃고 조금씩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판형은 작아졌고, 제목 페이지가 생겼으며, 점차 현지 방언으로 쓰인 책이 출판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책 시장이 자리 잡았다. 서점 주인들은 책을 보다 잘 유통시키고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며 유명해졌다. 폭넓은 독자층이 점차적으로 형성되었다. 인본주의와 종교개혁이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은 이러한 요소 덕분에 확산될 수 있었다.

담당

나탈리 쿠알리, 프랑스국립도서관 희귀 서적 서고 사서

카롤린 브랑, 프랑스국립도서관 판화 및 사진 담당 사서

전시도록

인쇄하다! 유럽의 구텐베르크

225 x 300mm

260쪽- 일러스트 180점

49유로

전시 관련

프랑스국립도서관 사이트 참조

오시는 길 및 관람 안내

파리 캐 프랑수아-모리악, 75013

동쪽 입구

이용시간: 화~토 10:00~19:00, 일 13:00~19:00

휴관일: 월, 공휴일

입장료: 10€, 할인 8€

연간 이용권인 Pass BnF Lecture/Culture(금액: 24€/할인: 15€) 및 Pass Recherche(금액: 55€/할인: 35€) 소지자는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전시문화행사를 무제한으로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인 및 무료 정보 등 모든 정보는 www.bnf.fr 참조

Translated with the support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Traduit avec le soutien d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MINISTÈRE
DE LA CULTUR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bnf.fr